

Ap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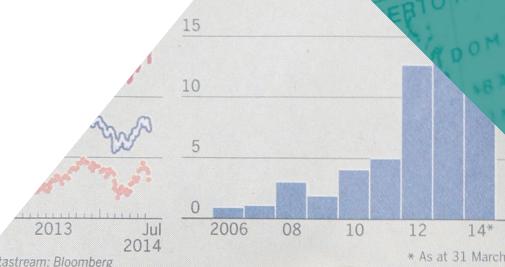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Datastream: Bloomberg

* As at 31 March

S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ue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n 17 times). About \$14bn is coming due this year, \$1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s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erty's best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se tw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lue
times Rosneft's in
is reserves (Exxon
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1bn
Rosneft may pay it
ing to sell its oil --
. Sanctions still allow
to US dollar clearing.

ance of ITV in the next six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content, rather than a
ant in it

rofit schools
g is business in the US.
trill dollars is spent each
on secondary education.
ness of listed, for-profit,
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n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ent of Education.
epartment has been cracking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금리

3월 동향 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재정정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장기금리 급등 영향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초반 연준의장의 추가완화
부재 시사 속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 월 초, 연준 의장 발언 중 추가 완화책 부재 후 시장 실망 속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에도 공급부담으로 상승세 유지
 - 3월 초, 연준 의장의 금리 급등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언급과 추가 완화책 부재에 미 국채금리 급등. 이에 국고채 금리 동조화 양상 시현
 - 대내적 요인으로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시행에도 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세 유지되는 양상 시현

중반 ECB 금리 급등 억제
시사 속 미 장기채의 무난
한 소화에 금리 상승세 완화
되다 FOMC 이후 자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
급등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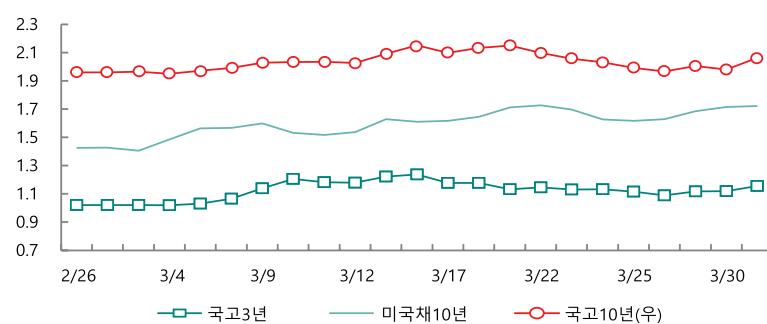
- 중반, 미 장기채의 무난한 입찰 결과 속 ECB 금리 상승 억제 정책 언급 등이 금리 상승세 제한한 가운데 FOMC 금리 동결 등에도 인플레이션 상승세 꺾이지 않는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도 상승 전환
 - 3월 중반, 미 재정정책에 따른 장기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소화된 가운데 ECB의 금리 상승 억제 정책 강화 시사 등이 일시적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세 제한
 - 그러나 FOMC에서의 금리 동결에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미 장기 금리가 1.75%를 상회한 영향이 글로벌 금리 상승에 영향

후반, 미 재정부양의 인플레
이선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연준의장 언급 등이
하락에 영향을 미침

- 후반, FOMC에서의 SLR 완화 종료 등으로 미 국채가격 하락에 동조 양상 보인 후, 미 재정부양책의 금리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연준의장 발언 등으로 미국채 금리 하향 안정 속 국고채금리도 하락 이어지며 마감
 - 3월 후반, 연준의 보완적레버리지규제(SLR) 완화 조치 영향에 따른 미 국채가격 하락에 국고채 금리도 상승 동조
 - 이어 연준의장이 미국 대규모 부양책에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국고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며 장기구간 중심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며 마감

3월 평균
국고채(3년): 1.13%
국고채(10년): 2.03%
T-Note(10년): 1.60%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4월
전망**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국내 코로나 상황 속 경제체질 개선이 부진한 측면이 금리 상단을 제한할 전망

평균	2021. 1Q ^F	2021. 2Q ^F	2021. 3Q ^F	2021. 4Q ^F
국고채(3y, %)	0.98	1.10	1.15	1.20

- 연준의 인플레이션 2% 상향 허용,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이 안전자산 선호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 장기금리 및 국고채금리의 점진적 상승 견인 할 것으로 보임
 - 전월 FOMC에서의 인플레이션 2% 상향 용인 등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도 경제회복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운데 수급측면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미 국채금리의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월에 비해 그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대내외 기관들 국내 성장을 상향에도 코로나 확산세 진정되지 않으며 내수부진 여전히 이어질 전망. 미 금리 상승기조 유지에도 국내 경제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는 대외 금리상승과 탈동조화 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외 기관들의 국내 성장 전망 상향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부진과 물가 상승 시그널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국내 경제체질 관점에서 국고채 금리가 동조화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의 재정정책과의 폴리시믹스 강화 속 금리동결 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대외적 금리 상승 기조에도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 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강화 속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이슈를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금리 상승 요인
 - 다만,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내수침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음에 따른 한은의 완화적 금리 동결 기조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할 전망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느슨한 대응 기조 속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이
미국채금리 상승 및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경제체질이 코로나 대
유행 지속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미 금리
와 국고채 금리의 탈동조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

4월 국고채(3년) 금리는
1.05%~1.15%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효 • 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통화완화 지속 의지 • 국내 코로나 상황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경제체질 개선 지연



달러/원 환율

3월 동향 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영향에 따른 금리 급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다 미 재정 및 인프라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

월 초, 연준의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에 대한 대응 부재 속에 고용 지표 개선 등이 경기 회복 기대로 이어지며 달러 강세

- 월 초, 연준의 금리 급등 대응에 대한 힌트가 부재한 가운데 뉴욕증시 리스크 확대 속 상승 출발. 이어 양호한 미 고용지표 개선 등이 달러 강세 견인
 - 3월 초, 연준 의장의 금리 급등에 대응한 정책이 부재하며 시장 실망감 확대 속에 달러 강세 견인되며 환율 상승 출발
 - 이어 미 고용지표 개선이 경기회복 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가 1.6%를 상회한 영향 등이 달러 강세를 지속시킴

중반, 미 FOMC 이후 연준의 완화적 정책 지속 의지에도 인플레 기대심리 강화되며 금리 급등세 연출 등으로 환율 상승

- 중반, ECB 채권매입 확대 소식과 바이든 경기부양책 서명 등이 위험선호 영향을 미쳤으나, FOMC 이후 인플레 기대 강화되며 금리 폭등에 환율 상승 지속
 - 3월 중반, 미 국채 입찰이 호조 보이며 금리 상승세 완화에 영향. 여기에 ECB 채권 매입 확대 소식과 바이든의 1조9천억 경기부양책 서명도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FOMC에서 연준의 통화완화 의지 표명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지속으로 금리 상승세 가팔라지며 금융 불확실성 확대 속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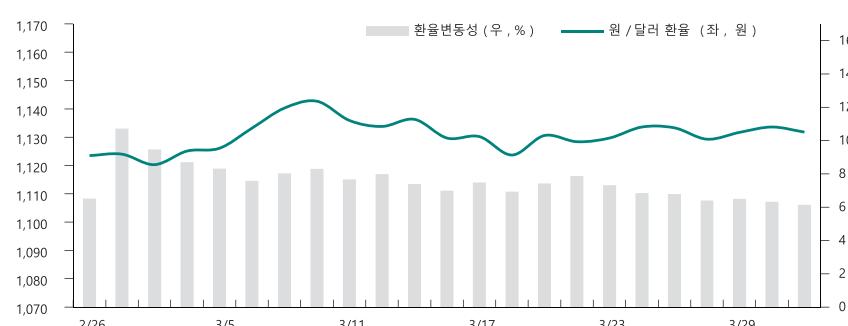
후반, 연준 SLR 완화 종료 영향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하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후 하락 전환

- 3월 후반, 연준 SLR 완화 종료 영향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 하다 월말 미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개되면서 위험선호 강화
 - 3월 후반, 연준의 SLR(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완화 종료 영향으로 국채 금리 상승이 탄력 받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불확실성 확대되며 달러 강세 흐름 시현
 - 이후, 미, 유럽과 중국의 외교안보적 갈등 부각 등이 위험회피 심리 자극했으나, 월말 미 행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공개되며 위험선호 전환 속 환율 하락 마감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31.05원

3월말 달러/원 환율 : 1,131.8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4월 전망

미국 대규모 재정, 인프라 투자 정책이 경기회복 기대에 영향 미치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 이어지며 달러 강세 시현 예상

평균	2021. 1Q ^F	2021. 2Q ^F	2021. 3Q ^F	2021. 4Q ^F
달러/원 환율(원)	1,125	1,135	1,140	1,150

-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용인 속에 미국의 추가 재정 및 인프라 투자에 따른 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4월에도 달러 강세 우위 예상
 - 4월에도 미국 금리는 연준 통화 완화 지속에도 SLR 규제 완화와 2% 상향 인플레이션 용인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여전히 자극 받으며 상승 시현할 전망
 - 여기에 미 행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가 경기회복 기대감을 북돋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코로나 악화로 경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 유럽 vs 중국의 무역 및 외교적 갈등 국면이 시장 전반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회복력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뒤쳐지면서 유로화의 강한 약세가 달러 지지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유럽과 중국간 무역 및 인권관련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측면이 통화시장에 안전자산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원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 대내적 국내 수출 호조세가 원화 강세를 견인하겠으나,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이 그 영향을 제한하는 가운데 좀처럼 약화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대내적 반도체, 조선 등의 수출 호조세가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이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
 - 여기에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중시 등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화 약세 견인할 전망

미국의 재정부양책 서명 이후 연이은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자극하며 달러 강세 견인할 전망

유럽의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유로 약세 영향 속 최근 불거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 등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

4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 1,125원~1,145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장기 금리 상승 추세 유지 가능성 · 뉴욕증시 조정 가능성 속에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유효 · 미국과 중국의 신갈등 구도 · 배당 역송금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반도체, 조선 등 견조한 수출 흐름 지속



엔/원 환율

3월 동향 달러/엔은 미·일 금리차 확대에 110엔 돌파. 엔/원은 엔화 약세 심화 속 전반적인 하락 시현

엔/원 환율 전월대비
24.6원 하락한 1,019.2
원에 마감

-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에 엔/원 환율 하락 시현
 - 월 초, 강달러 속 위험 회피, 외국인 주식 매도 등에 따른 원화 약세가 엔/원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
 - 월 중반, 원화는 약세 둔화된 반면, 엔화는 미·일 금리차 확대 지속에 따라 약세 두드러져 엔/원 환율 하락전환
 - 월 후반, BOJ의 금리 변동폭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이 110엔을 돌파하는 엔화 약세 심화 영향으로 엔/원 환율은 1,010원대로 하락

4월 전망 달러/엔 환율은 강달러 영향이 지속되며 추가 상승 시도 전망. 엔/원 환율은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 심화된 영향으로 하락 예상

달러/엔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 미국 경제 성장 기대 속 강달러 지속 전망이 달러/엔 환율 추가 상승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며 달러/엔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 속 미·일 금리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 증세 논의가 미국 경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 강세가 제한될 여지 상존

엔/원 환율 하락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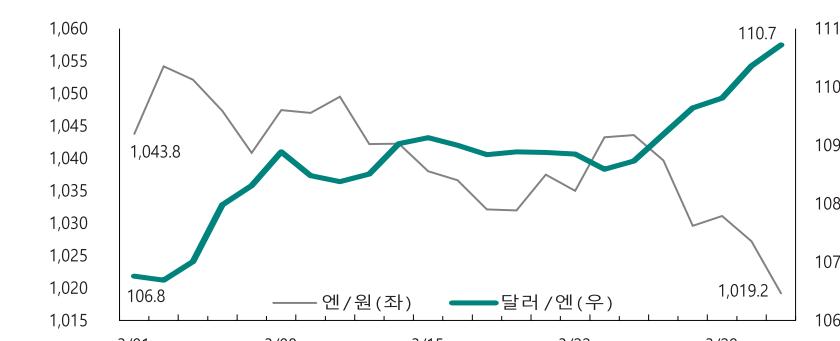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강한 엔화 약세 영향으로 엔/원의 제한적 하락 전망
 - 원화의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엔/원의 제한적 하락 전망
 - 다만, 미국 증세 논의가 위험기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엔/원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3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8.7엔

3월 엔/원 평균환율
: 1,039.6원

4월 엔/원 예상 범위
: 1,005~1,04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3월
동향**

유로/달러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봉쇄 연장 속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 등으로 1.17대까지 하락. 유로/원은 원화 약세 둔화 속 유로 약세에 전반적인 하락 시현

-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하락
 - 월 초, 유로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등 유로화 약세요인과 강달러, 위험기피 등 원화 약세요인이 혼재함에 따라 환율 변동성 확대
 - 월 중반,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PEPP 매입 규모 확대 결정, 백신 보급 차질 등이 유로/원 환율 하락 견인
 - 후반, 유로존의 경제 봉쇄 연장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속 유로/달러 환율은 1.17달러대로 하락, 이에 유로/원 하락 시현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0.2원 하락한 1,325.7
원에 마감

**4월
전망**

유로/달러는 강달러 속 유로존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4월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원은 원화 약세 전망에도 유로존의 펀더멘털 약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제한적 하락 예상

- 대비되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 전망에 유로/달러 환율 하락 전망
 - 유로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봉쇄 연장 등이 유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ECB의 완화적 통화스탠스도 유로화 약세압력으로 작용 할 전망
 - 반면, 미국은 경기 회복 기대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여 달러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달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유로존 백신 보급 정 상화시 환율 상승전환 가능성도 상존
- 유로/원 환율은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제한적 하락 시현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로존의 펀더멘털 약화가 유로화 약세를 견인하며 유로/원 환율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다만, 위험기피 속 원화 약세 전망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유로/달러 추가 하락 전망

유로/원 환율 제한적 하락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900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6.8

4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10원~1,34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4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한 3월 수출/수입(+9.5%/+3.9%, YoY) 3월 무역수지(\$2,707M) 미 3월 ISM 제조업자수(60.8) 3월 ISM New Orders(64.8) 3월 ISM 고용(54.4), ISM 구매물가지수(86) 3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 Markit 제조업 PMI(59.0) 유 3월 Markit 제조업 PMI(62.4) 중 3월 Caixin 제조업 PMI (50.9)	한 3월 CP(0.5% MoM, 1% YoY) 3월 외환보유고(\$47,566) 미 3월 실업률(6.00%), 시간당 평균임금 3월 경제활동 참가율(61.4%) 일 3월 본원통화	
4	5	6 RBA 통화정책회의	7	8	9	10
	한 3월 외환보유고 미 3월 ISM 서비스(57.3) 3월 Markit PMI 종합(59.1)/ 서비스(60) 3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 수주(-1.0%) 일 3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 종합[P]	유 4월 센트스 투자자기대자수(6) 2월 실업률(8.1%) 중 3월 Caixin 종합 PMI(51.7)/ 서비스 PMI(51.5) 3월 CPI/PPI(-0.2%/1.7%, YoY) 호 RBA 기준금리(0.0%)	한 3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2월 무역수지(\$-68.3b) 3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3월 Markit PMI 서비스(48.8) 3월 Markit PMI 종합(52.5)	미 FOMC 회의록 공개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2월 BoP 경상수지 3월 소비자기대자수 독 3월 공장生주(4% MoM, 25% YoY)	미 3월 PPI(0.5% MoM, 2.8% YoY) 중 3월 CPI/PPI(-0.2%/1.7%, YoY) 독 3월 산업생산 (-2.5% MoM, -3.9% YoY) 3월 무역수지(14.3b) 3월 경상수지(16.9b)	
11	12	13	14	15 韓금8위정례회의	16	17
	유 2월 소매판매 (-5% MoM, -6.4% YoY) 일 3월 은행대출 3월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36.7%, YoY) 3월 PPI(0.4% MoM, 0.7% YoY)	한 3월 실업률(4.0%) 3월 통화공급 L(1%, MoM), M2(1.3%, MoM) 미 3월 CPI(0.4% MoM, 1.7% YoY) 유 4월 ZEW 서비스 예상(74) 일 3월 통화량 M2(9.6%, YoY), M3(8.0%, YoY) 중 3월 무역수지(\$78.1b) 3월 수출/수입(+8.1%/6.5%, YoY) 독 4월 ZEW 서비스 예상(76.6)	한 3월 수출물가지수 (3.1% MoM, 0.2% YoY) 3월 수입물가지수 (3.8% MoM, -0.8% YoY) 미 3월 주택착공간수(-10.3% MoM) 3월 건축허가(-10.8% MoM) 3월 수출물가지수 (16% MoM, 5.2% YoY) 3월 수입물가지수 (1.3% MoM, 3.0% YoY) 유 2월 산업생산(+8% MoM, 0.1% YoY) 일 2월 학생기자수주 (-4.5% MoM, 1.5% YoY) Fed's Harker Discusses the Economic Outlook	한 BoK 7일 Repo 금리(0.5%) 미 3월 설비기동률, 광공업생산 (-2.2%, MoM) 4월 필리핀PMI 연준 경기 전망 3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베이징 공개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미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3월 주택착공간수(-10.3% MoM) 3월 건축허가(-10.8% MoM) 유 2월 무역수지 3월 CPI(0.9% YoY) 중 3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18	19	20	21	22 ECB 통화정책회의	23	24
	유 2월 건설생산(0.8% MoM, -1.9% YoY) 일 2월 설비기동률(4.7% MoM) 2월 광공업생산[P] 일 3월 수출/수입(-4.5%/11.8%, YoY) 3월 무역수지(¥217.4b)	일 2월 3차 산업자수(-1.7% MoM) 3월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F] 독 3월 CPI(0.7% MoM, 1.9% YoY) 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한 3월 PPI(20% YoY) 4월	미 3월 기준 주택매매(-6.6% MoM) 3월 시카고 연방 국기활동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ECB 단기수신금리 (-0.5%)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	미 4월 Markit PMI 제조/종합/서비스 3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 3월 신규 주택매매(-18.2% MoM) 유 4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 PMI 일 3월 전국 CPI(-0.4% YoY) 4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P]	
25	26	27 BOJ 통화정책회의	28 美 FOMC(~29)	29 美 FOMC	30	
	미 3월 내구재 주문 4월 딜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3월 CPI(-0.1% YoY) 독 4월 IFO 기업환경지수	한 1Q GDP[P](-1.2%) 미 4월 리모드 연방 제조업자수 4월 2페린스보트 소비자 기대자수 일 20 BOJ CPI, GDP 전망 BOJ 10년 수익률 목표 중 3월 산업생산(20.1%, YoY)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3월 도매자고, 소매재고 MBA 주택용자 신청자수 일 3월 백화점, 슈퍼마켓 매출 소매판매 독 5월 GIK 소비자 기대자수	한 4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FOMC 금리결정 (하한 0.00% ~상한 0.25%)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Q GDP 풀가지수 유 4월 경기산업/서비스/ 소비자 기대자수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	미 3월 개인소득, PCE 디플레이터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1Q 고용비용지수 유 3월 실업률 4월 CPI 일 3월 실업률 4월 도쿄 CPI 3월 건설수주, 주택착공간수, 광공업 생산 중 4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